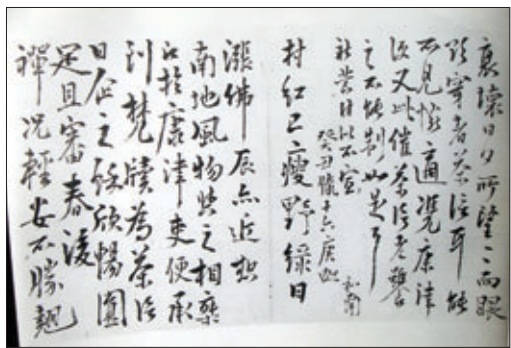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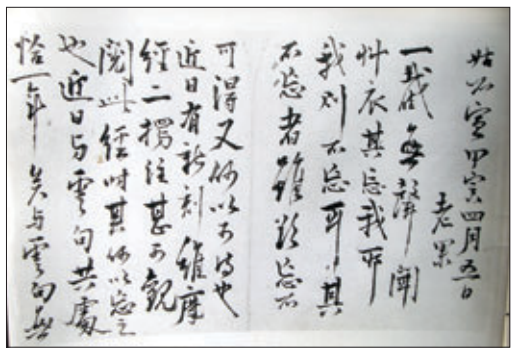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는 나를 잊었는가”

추사의 이 편지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로, 1853년 선달 16일, 초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응송스님의 연구 자료 속에 들어 있던 친필본 사진판 자료이다. 과천 시절, 추사의 일상을 잘 드러낸 편지이며, 새로 간행된 <유마경>, <능엄경주>를 읽은 후, 이 경전을 읽는 즐거움을 “매우 불만하다”고 하였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로 공개되는 응송 스님 자료에 있는 추사 친필본

일 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초의는 나를 잊었는가. 나는 즉 (그대를) 잊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를) 잊지 않은 것은 비록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고, 또 어떻게 잊을 수 있었습니까. 최근 새로 출판한 유마경 2권과 능엄주를 얻었는데, 매우 불만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어찌 (그대를) 잊었습니까. 근일에 운구와 함께 지냈던 일 년은 흠족했습니다. 운구와 함께 노쇠해지지 않기를 밤낮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눈으로 꿰뚫어 보고 싶은 것은 차와 편지일 뿐입니다. (늘) 볼 수 없음이 애석하여 마침 강진의 인편에 거듭 차와 편지를 재촉하니 늙은이의 탐욕을 막을 수 없음이 이와 같습니다. 새 달력을 인편에 보냅니다. 이만 1853년 12월 16일 경자화남(一載無聲聞 艸衣其忘我 我則不忘耳 其不忘者 雖欲忘不可得 又何以可得也 近日有新刻維摩經二標註 甚可觀閱 此經時其何以忘之也 近日與雲句共處恰一年矣 與雲句無衰壤 日夕所望 所望而眼欲穿者茶信耳 能不見憐 適感康津便 又此催茶信 老 老 不能制如是耳 新黃付從 不宣 癸丑臘十六 庚迦和南)

“초의는 나를 잊었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대를) 잊지 않은 것은 비록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고, 또 어떻게 잊을 수 있었습니까”라고 하였다. 당시 상황적으로 초의와 소식이 두절되었지만 자신은 한순간도 초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로 입수한 <유마경>과 <능엄경>의 탐독은 그의 일상을 흠족하게 만든 듯. 이런

상황이므로 “어찌 (그대를) 잊었는가”라고 한 것이다. 참으로 이들의 인간적인 교류와 보인(輔仁)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능엄경>에 밝았던 운구 승려를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띈다. 당시 추사는 운구(雲句)와 일 년을 함께 지내며 <능엄경>을 강론했음을 알 수 있다. 운구(雲句)에 대한 내력은 그가 권문인에게 보낸 <여권이재(與權穉齋)>21신에 자세한데 그 내용은 이렇다 “이 승려 한민(漢旣)은 자칭 운구라고 하는 자입니다. 작년부터 나와 내왕했는데, 신근(信根)이 대단하고 원력(願力)도 대단합니다. 비록 제승(諸乘)을 두루 섭렵하지는 못했지만, <금강경(金剛經)>·<능엄경(楞嚴經)>에 대한 공부가 대단하고, 그 정진(精進)하는 정성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당시 <능엄경>에 대한 의문을 운구와 담론하며, 흡족한 나날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운구를 떠나보내며, 쓴 <중운구상인(贈雲句上人)>에 “중략... 정의 뿌리는 어디에 박혔는지(情根何處) 머뭇거리며 차마 떠나지 못하는구나(不忍別)”라 하였다. 진정 정의 뿌리는 얼마나 단단하기에 이리 머뭇거리며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공각의 소생을 논했던 추사, 탈속한 경계에서 선적인 삶을 경주했던 그에게도 인간의 정은 이리도 그의 발목을 잡는 아쉬운 회한으로 드러나는 실상(實相)인가. 늘 초의를 “볼 수 없음이 애석하여 마침 강진의 인편에 거듭 차와 편지를 재촉”하는 자신, 차를 탐하고 초의를 그리는 늙은이의 탐욕은 제어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를 청하는 은근한 말이 더욱 돋보인다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나눔·봉사·배려’ 스승 가르침 40년 실천

학명 스님 (남한산성 성불사 주지)

백백한 고층건물이 자리한 서울 강남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원한 녹음의 기운을 전하는 남한산이 길손을 맞이한다. 양팔 벌려 서울을 감싸 안은 듯한 이 산 자락에는 성불사가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남한산에 위치한 성불사는 번뇌에 찌든 현대인들을 청량하게 만드는 ‘기도도량’이다. 성불사 대웅전 옆에 작게 자리한 스님의 주석처에 들어서자 책장을 넘기던 스님이 반갑게 객을 맞는다.

성불사 주지 학명(學明) 스님이 남한산 자락에 성불사를 건립한 것은 ‘나눔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1976년 음력 5월 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찰을 창건한 학명 스님이 걸어 온 길은 수행과 포교, 복지사업으로 점철된다. 성불사는 작은 사찰이지만 스님은 수십년 동안 그 어느 사찰의 스님들보다 헌신적으로 보시행을 펼치고 있다.

“은사 스님 밑에서 나와 서울로 올라와 이 곳에서 수많은 전도로 숨진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기도를 올리며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마솥 걸고 불 땀 자라도 없어 생수살을 먹던 때였습니다. 인근에 딱 두 집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 자신을 챙기기도 힘든 어르신 두 분이 안타까웠는지 쌀과 반찬이며 보내왔어요. 그 때 받았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리를 잡으면 꼭 어르신들에게 회향하자’구요.”

스님은 그 때부터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정기적 방문은 물론 반찬과 음식,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금은 개발이 진행돼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스님의 마음은 초심 그대로다.

스님의 오래된 지론은 나눔에는 부유함과 가난함이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작은 사찰인 성불사는 그 어느 사찰보다 많은 보시행에 나서고 있다. 사찰 재정의 40%가 넘는 금액을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고 있다니 놀라움 따름이다.

특히 음력 5월 1일, 성불사 창건일에 열리는 경로잔치는 36년이 넘게 열리고 있는 지역사회의 큰 축제다. 성불사는 매년 인근 지역 어르신 400여명을 초청해 노래자랑, 연예인 만남 등을 펼치고 있다. 또 스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성동구치소 재소자 교화활동과 자원봉사활동까지 펼치고 있다. 1998년부터 매년 1회 성동구치소를 찾아 합동생일잔치를 열고 있다. 이밖에도 스님은 문경 등지에 연탄 1만장을 보내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농산물작거래 일일장터를 매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는 사찰 아래에 어르신센터를 세우고 싶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센터에서 눈치보지 않고 편히 쉬며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해요. 어르신들 마음이 편하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화합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인재불사에 한국불교 미래 있어

학명 스님은 인재불사에도 정성은 쏟고 있다. 3억 원을 출현해 재단법인 ‘백담장학회’를 설립한 학명 스님은 2002년부터 해마다 청소년 불자와 종립대학에서 수학 중인 스님들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1억 6000만원에 달한다.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불교계 학교 학생 200여 명이 지금까지 스님의 후원으로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인재불사 없이는 우리 불교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 모시는 곳을 여법하게 불사했으니, 이제 부처님을 키워내는데 힘써야죠. 사찰이나 장학회를 통해 도움 받은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자라나 사회에 자신의 역량을 환원하는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학명 스님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거나, 안부를 묻는 학생들의 전화가 걸려올 때면 오히려 고마워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스님의 인재불사에 대한 정성은 종립대학인 동국대 발전에 까지 이어졌다. 동국대에서 가장 많은 세미나가 열리는 곳이 바로 ‘학명 세미나실’. 스님이 동국대에 교지매입기금, 장학 기금 등 매년 조금씩 기부한 금

액이 5억 원이 넘자 이에 동국대 측이 감사의 의미로 붙인 것이다. 스님의 인재불사 원력을 높이 사 동국대는 학명 스님의 은사 스님의 법명을 딴 강의실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이 추진하는 비전 2020에도 2억 원을 추가로 기부하기로 했다.

은사 스님 가르침 이 생 다할 때까지 따를 것

스님의 인재불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은사 스님에게서 비롯됐다. 학명 스님의 은사 스님은 대구 파계사 성전암에서 20년 넘게 두분불출, 수도하며 설법하던 선승 철용 스님이다. 1960년 출가한 학명 스님은 은사 스님에 대해 “출가자는 중생들의 모범이자 스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셨던 엄한 스승”이라며 “늘 나눔과 봉사, 배려에 대해 강조하신 은사스님의 뜻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명 스님은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 은사 스님이 일러 준 가르침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했다.

“귀한 것일수록 버리는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한 해, 두 해 절생활을 익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귀한 가르침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버림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1월 6일 스님이 직접 쓴 <법화경 이야기>를 출간하기도 했다. 출간을 기념해 열린 자리는 스님의

1976년 성불사 창건 이후 무주상보시

사찰재정 40% 장학·생활지원 사용

‘고난 속 쌀 보시한 어르신 못잊어’

36년째 매년 경로잔치 열어 ‘보은

사찰촌 어르신 쉼터 건립 새롭게 발원

은사 철용 스님 으뜸 가르침 ‘법보시’

불서 2만권 보시 서원, 1만 8000권 배포

인재불사 원력으로 ‘백담장학회’ 창립

200여 중·고·대학생 학업 지원

법보시 1만 8000권을 기념하는 자리기도 했다. 스님은 2만권 법보시를 발원하고 <선사들의 숨은 이야기>, <일이종이 있어야 삼중도 있지>, <마음의 주춧돌>, <지혜롭고 행복한 길>, <심전수행>, <금강경 이야기>, <지장경 이야기>, <관음경 이야기>, <처음 그 마음> 등을 펴내 교도소 등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은사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불서의 문구 하나를 본 인연이 부처님 법을 알고자하는 발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불사에 조사전을 마련해 아침 저녁으로 예를 올리고 있다는 스님은 “살아계셨을 때 조금 더 공부를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며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마당에서 부처님께 공부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큰 원력 뒤에는 한마음으로 따르는 신도들이

하지만 큰 원력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는 법. 학명 스님에게는 스님의 원력을 믿고 한마음으로 따르는 신도들이 있었다.

“제가 한 일이라고 목탁치고 기도한 일밖에 없습니다. 신도들이 도와줘 일이 된 것입니다. 성불사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성불사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신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스님은 성불사 성장의 동력은 신도들이며, 성불사가

범어가 담긴 도자기에 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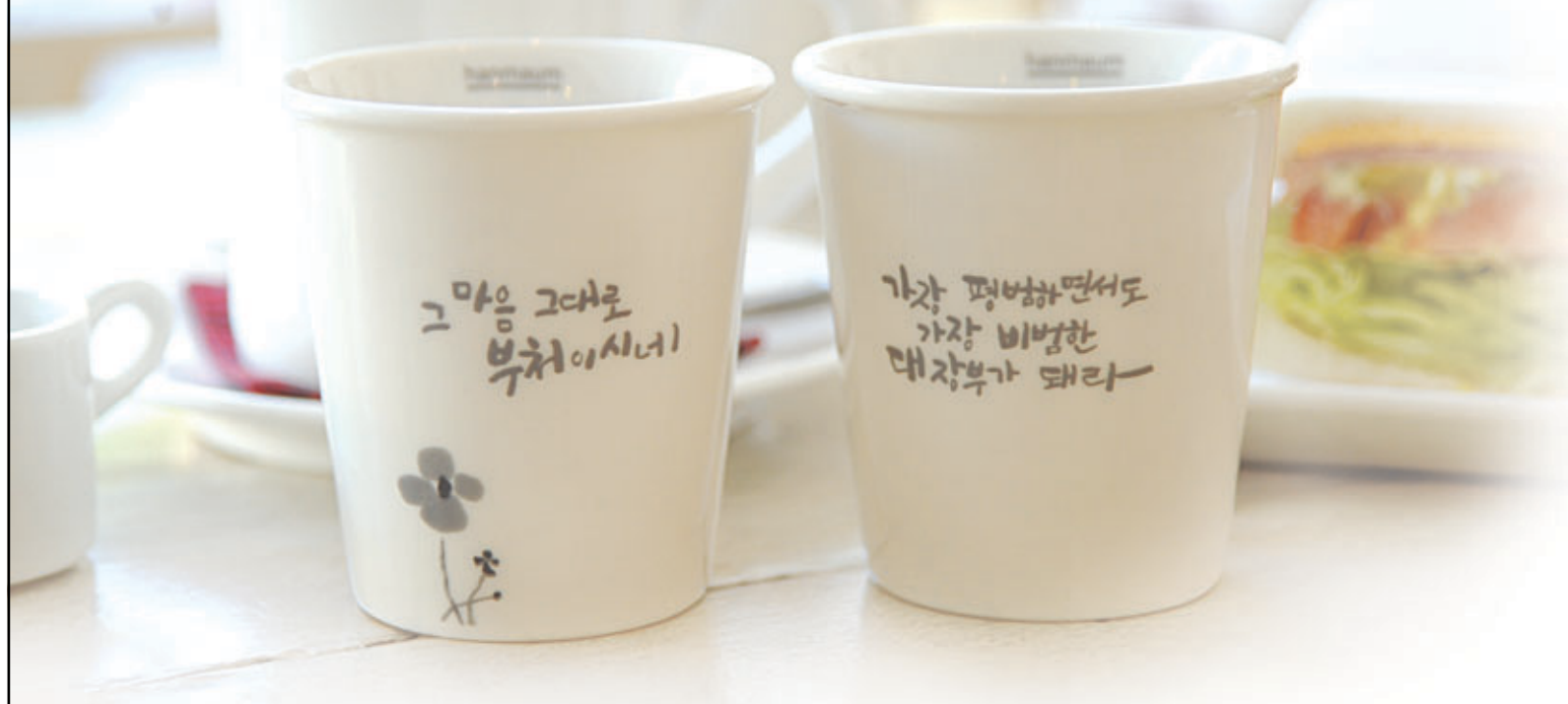
종류	컵범어내용	판매가
Aset	마음+대장부	9,000원
Bset	마음+마음	9,000원
Cset	대장부+대장부	9,000원

- 컵 날개 5,000원 (택배비 별도)
- 2세트 9,000원 (택배비 별도)
- 3세트 27,000원 (택배비 무료 !!)

▷ 범어내용 <

1. 마음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2013년 11월 동국대 김희욱 총장에게 발전기금 2억원을 전달한 학명 스님. 동국대는 스님의 이름을 딴 세미나실이 있다.



1월 6일 스님이 출간한 <법화경 이야기>. 스님은 2만권 불서 법보시를 발원했다.